

2022년 11월 13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5 And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to the whole creation. 16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17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18 they will pick up serpents with their hands; and if they drink any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they will lay their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마가복음 Mark 16:15-18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많은 변수가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추수 때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판을 보여주시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추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보잘 것 없는 모습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할 길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하나로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구원 받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고니온에서 At Iconium

사도행전 Acts 14:1-5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Now at Iconium they entered together into the Jewish synagogue and spoke in such a way that a great number of both Jews and Greeks believed.

2.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But the unbelieving Jews stirred up the Gentiles and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So they remained for a long time, speaking boldly for the Lord, who bore witness to the word of his grace, granting signs and wonders to be done by their hands.

4.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But the people of the city were divided. Some sided with the Jews and some with the

apostles.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When an attempt was made by both Gentiles and Jews, with their rulers, to mistreat them and to stone them.

살롬!

벌써 2022년 추수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예배” 로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피하여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약 144km 거리였습니다. 86마일. 서울에서 부여까지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길로이(Gilroy)까지입니다. 자동차로 시속 70km로 달린다면 두 시간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걸었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교회들을 세웠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대인들이 그 지방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 추방해 버린 슬픈 기억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지방에서 밭에서 티끌을 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Iconium)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시 유대인의 회당(Jewish synagogue)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구원의 열정이 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거기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머물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말씀을 대언할 뿐이요, 역사하시는 분은 부르신 자, 곧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 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가 용서 받고, 마귀가 물러가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표적이 일어납니다. 1. 귀신을 쫓아내며, 2. 새 방언을 말하며, 3. 뱀을 집어 올리며, 4.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았습니다.

특히 네 번째 표적을 주목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독을 마시는 것” 과 같았습니다. 치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달려들었어도!

이것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합니다.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Now at Iconium they entered together into the Jewish synagogue and spoke in such a way that a great number of both Jews and Greeks believed.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기는 들어가지 말자” 할 수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마음이 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교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음 보는 자들이 처음 듣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고 믿다니!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교회 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친구 하면서,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이고니온 사람들처럼 단 한 번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As many as were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사도행전 Act 13:48c

지난 주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고니온 직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때의 정황을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가 묘사한 것입니다.

1.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2. 다 믿더라.

확실히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놀라운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 믿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중에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증거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얼어붙은 대지를 곡괭이로 파고 씨를 심습니다. 씨를 뿌릴 때 역경과 고난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with shouts of joy!

시편 Psalm 126:5

그렇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2.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But the unbelieving Jews stirred up the Gentiles and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 할 때, 믿는 자도 있지만 반대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악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복음전도자들의 삶은 기쁨과 역경, 이 두 가지가 동시사건입니다.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So they remained for a long time, speaking boldly for the Lord, who bore witness to the word of his grace, granting signs and wonders to be done by their hands.

그러나 그들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핍박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지만, 복음증거와 교회설립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도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오래 머문 것은 “성령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땅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다섯 가지 기사들입니다. 1. 귀신을 쫓아내며, 2. 새 방언을 말하며, 3. 뱀을 집어 올리며, 4.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결국 복음전파의 본질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말씀 증거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전파를 돕는 도구입니다.

4.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But the people of the city were divided. Some sided with the Jews and some with the apostles.

그 사도들(the apostles).

누가는 오직 여기서만 열 두 제자들 외의 인물들에게 “사도” 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물론 바나바도 “사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무리가 나뉩니다.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입안 식구이리라.
And a person's enemies will be those of his own household.
마태복음 Matthew 10:36

복음을 믿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로 양분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속주의와 이기주의로 뿔뿔 뭉친 어떤 그룹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떤 가정이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한결같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입니다.

끝내 갈라졌던 그들이 하나로 되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2천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한 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식구들이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믿는 이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 결국 가족이 양분됩니다. 하지만 끝내 모든 식구가 다 구원 받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보십시오. 이고니온 시내(city)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둘로 치려고 달려드니.
When an attempt was made by both Gentiles and Jews, with their rulers, to mistreat them and to stone them.

여기서 두 사도들을 반대하는 그룹에 속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도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둘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그는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쳐야 합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악감”과 “모욕”에 더하여 “돌”까지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느냐, 탈출하여 생명을 부지하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던 그대로,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발에서 먼지도 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역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FF Bruce의 주석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포루스(Onesiphorus)는 이고니온 출신입니다. 그가 바울행전(Acts of Paul)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들어올 때, 그가 처음 보았던 바울의 모습을 스케치 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And he saw Paul approaching, a man small of stature, with a bald head and crooked legs, in a good state of body, with eyebrows meeting and nose somewhat hooked, full of friendliness; for now he appeared like a man, and now he had the face of an

angel.

Acts of Paul 3.3. W.M. Ramsay, The Church in the Roman Empire (London, 1893):
31-32.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누가복음 Luke 4:18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No prophet is acceptable in his hometown.

누가복음 Luke 4:24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방 나라 시돈(Sidon) 땅의 사렙다(Zerephath) 과부가 섬겼고,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방 나라 수리아 사람(Syrian) 나아만(Naaman)이 나병을 고침 받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던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지어 고향 땅에서도 배척을 받으셨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에서도 핍박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기에서 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혼자만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말하자면 추수할 곡식을 두고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We are afflicted in every way,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driven to despair.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4:8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For as we share abundantly in Christ's sufferings, so through Christ we share abundantly in comfort too.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5

풍랑과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But he said to them, "It is I. Do not be afraid!"
요한복음 John 6:20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출애굽기 Exodus 3:14

온 세상을 보십시오. 사방을 보십시오. 원수 마귀가 크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사탄세력을 영원히 무저갱에 가두어 버리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He delivered us from such a deadly peril, and he will deliver us. On him we have set our hope that he will deliver us again.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10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